

야구

가장 성공한 미국의 대일 수출품



프로야구
(사진제공 : 교도통신사)

야구는 1872년 경 미국에서 도입되었다. 학교들이 클럽 활동 팀을 만들면서 야구는 급속도로 대중화되었다. 프로 야구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스포츠이며, 아마추어 야구는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다. 여러 주요 기업들 또한 자사의 아마추어 팀을 후원한다. 일본의 양대 프로 리그 경기는 3월에서 10월 사이에 거의 매일 중계 방송되며 유명 선수들은 국가적인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된다.

아마추어 야구

야구는 남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스포츠이다 (안전을 위해서 고무 공을 사용한다). 시합은 대개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야구는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다. 1915년 이래로, 매년 2회 봄과 여름에 일본 최고의 고등학교 팀들이 효고현에 있는 고시엔 구장에서 시합을 한다. 매년 거의 4,000개 이상의 팀들이 참여하는 예선전이 끝난 후, 일본의 47개 현에서 올라온 최강 팀들이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경쟁한다.

고시엔의 토너먼트 경기는 NHK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전국으로 중계 방송된다. 교우들과 선수 가족들은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효고까지 간다. 경기마다 약 85만 명의 관중이 스탠드를 가득 채운다. 결승전에서 맞붙는 2팀의 고향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텔레비전과

고교야구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는 매년 2회, 봄과 여름에 효고현에 있는 고시엔 야구장에서 개최된다. (사진제공 : Photo Kishimoto)



라디오 앞에 모이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며 심지어 거리의 교통마저도 한산하다.

재능을 발휘한 고등학교 선수들 중 대다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프로 팀에 스카우트된다. 따라서 최고 수준의 프로 선수 중 대부분이 고시엔 구장의 영웅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 야구 역시 많은 팬이 있다. 소위 'Big Six'라 불리는 6개 대학(게이오, 도쿄, 릿쿄, 메이지, 와세다, 호세이) 팀들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얻는다. 매년 게이오와 와세다 대학이 겨루는 경기는 1903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유명한 라이벌전이다. 대학 선수 중에서 프로 선수로 훌륭한 경력을 이어간 선수는 릿쿄 대학의 나가시마 시게오, 호세이의 다부치 고이치와 에가와 스구르가 있다.

많은 회사들이 자사의 아마추어 팀을 갖고 있어서 매년 전국적인 기업 토너먼트가 열린다. 시합에서는 알미늄 배트를 사용하며 지명타자제도를 도입했다. 기업 팀들의 최고 선수는 종종 프로 팀에 의해 시즌 전에 드래프트되어 다음 시즌 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일본의 아마추어 팀은 미국과 일본 간의 대학 시리즈와 같은 지역적, 국제적 행사에서 경기를 갖는다. 야구가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되면서 일본 팀은 올림픽에 참가하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땀으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땀다.

프로 야구

리그 대항전은 1936년부터 시작되었다. 센트럴리그 8개 팀과 퍼시픽리그 7개 팀으로 이루어진 양대 리그 제도는 1950년에 채택되었다. 당시, 2개 팀은 철도 회사 소유였고 2개 팀은 신문사가, 다른 팀들은 대부분 기업의 스폰서를 받고 있었다. 현재 센트럴 리그는

주니치 드래곤즈(나고야); 한신 타이거 스(오사카); 히로시마 도요 카프(히로시마);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즈(도쿄);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 (요코하마); 요미우리 자이언츠(도쿄)로 이루어져 있으며, 퍼시픽 리그는 지바 롯데 마린스(지바);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후쿠오카); 홋카이도 니폰햄 파이터즈 (삿포로); 오릭스 버팔로즈(오사카), 사이타마 세이부 라이온즈(도쿄로자와); 도호쿠 라쿠텐 골든 이글스(센다이)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 고라쿠엔에 있는 도쿄 돔, '빅 에그 (Big Egg)'는 일본 최초의 돔 구장이다. 이러한 돔 구장은 일본의 장마철에도 날씨와 상관없이 경기를 할 수 있어, 후쿠오카, 나고야, 오사카에도 건설되었다.

스타 야구 선수

일본의 위대한 프로 야구 선수들은 미국 메이저리그에 필적하는 기록들을 세웠다. 가장 유명한 선수는 요미우리에서 내야수를 맡았던 오 사다하루이다. 22년 간의 선수 생활 동안 베이브 루스의 714개와 메이저리그 기록 보유자인 행크 아론의 755개를 능가하는 868개의 홈런을 쳤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로 야구의 가장 위대한 투수는 정확한 컨트롤과 강속구로 통산 400승을 기록한 좌완 투수 가네다 마사이치이다. 큰 업적을 남긴 또 다른 선수는 히로시마 카프의 기누가사 선수이다. 2215경기에 연속 출장한 철인 기누가사는 뉴욕 양키스의 루 게릭이 갖고 있던 메이저리그 종전 기록인 2130을 넘어섰다.

아마도 야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했던 선수는 릿쿄대학의 스타 선수이자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내야수로 활약한 나가시마 시게오일 것이다. 'Mr. Giants'로 알려진 나가시마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9년 연속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소년야구

야구는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스포츠다. (사진제공 : AFLO)



야구의 국제화

미국의 프로 올스타 팀은 1920년대 이래 일본 친선 방문을 계속해 왔다. 또, 일본의 모든 프로 야구 팀에서 현재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일본 프로 야구 팀들은 미국, 한국, 타이완, 몇몇 남미 국가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한다. 이들 중 대부분이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며 좋은 기록을 세우지만 몇몇 선수들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기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하여 한 시즌이 끝난 후 떠나는 사람도 있다.

한편, 일본프로야구에서 활약한 많은 선수들이 자유계약선수로 메이저 리그팀과 계약해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다. 긴테쓰 버팔로즈의 스타 투수였던 노모 히데오는 1995년 LA 다저스에 입단하였다. 그는 독특한 투구 자세로 ‘토네이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같은 해 내서

넬리그의 신인왕으로 뽑혔다.

그 후 시애틀 매리너스(2001~2012), 뉴욕 양키스 (2012~2014) 및 마이애미 말린스 (2015~)의 이치로 선수, 뉴욕 양키스 (2003~2009), 로스앤젤레스 애너하임 (2010), 오클랜드 애슬레틱스(2011), 탬파베이 레이스(2012)로 이적했다가 2013년 은퇴한 마쓰이 히데키, 시카고 컵스의 우에하라 코지 LA 다저스에 다르빗슈, 뉴욕 양키스의 타나카 마사히로 등 다른 일본 프로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이적했다. 최근 일부 젊은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생을 미국 팀이 직접 스카우트하기도 했다.

또, 전세계적 규모의 국가·지역별 야구 대항전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이 개최되어, 일본 대표 팀은 2006년과 2009년 2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였다.



일본대표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시합 직전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본대표 선수들의 모습이다. (사진제공 : Photo Kishimoto)

선수명	소속팀	포지션
노모 히데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1995~1998) 뉴욕 메츠(1998) 밀워키 브루어스(1999) 디트로이트 타이거스(2000) 보스턴 레드삭스(2001) 로스앤젤레스 다저스(2002~2004) 탬파베이 데블레이스(2005) 캔자스시티 로열스(2008)	투수
이치로	시애틀 매리너스 (2001~2012) 뉴욕 양키스 (2012~2014) 마이애미 말린스 (2015~2017) 시애틀 매리너스 (2018~2019)	외야수
마쓰이 히데키	뉴욕 양키스(2003~2009)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2010) 오클랜드 애슬레틱스(2011) 탬파베이 레이스(2012)	외야수
우에하라 고지	볼티모어 오리올스(2009~2011) 텍사스 레인저스(2011~2012) 보스턴 레드삭스(2013~2016) 시카고 컵스(2017)	투수
다르빗슈 유	텍사스 레인저스 (2012~2017)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2017) 시카고 컵스 (2018~)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	뉴욕 양키스 (2014~)	투수
오타니 쇼헤이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2018~)	투수/ 외야수/ D.H.